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름 (엘카나)
 사 목 회 장 : 이우출 (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관 면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21대 청담동 성당 사목회 총회장
 - 손영모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21대 사목회장으로 선임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본당 사목활동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2년간 본당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주신 이우출 예로니모 20대 총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취임식: 12월 1일(주일) 교중미사

- 구역주일 (11구역 주관, 미사 후 친교나눔)
 - 일시: 11월 24일(오늘) 오전 11시 교중미사
- 병자안수 축복식: 11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임산부 축복식: 12월 1일(주일) 교중미사
- 12월 3일(화)부터 평일 오후 7시 저녁미사는 1층 1층 프란치스코 홀에서 봉헌됩니다.
 - (※ 성시간이 있는 첫째주 목요일만 2층 대성전에서 합니다.)
- 성탄 대축일 제대꽃 봉헌
 -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며 제대 장식을 위하여 꽃봉헌 하실 단체나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성탄 판공성사 안내
 - 대림기간 동안 보시는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 됩니다. 대림 판공 성사표는 각 구역장님과 반장님께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거주와 구역은 성당 사무실로 오시어 성사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뀌신 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시면 교적 사항에 변경해드립니다.

공동 참회예절 / 개별사죄경 / 공동보속

날짜	12월 20일(금) 오후 8시 ~ 오후 9시 40분
시간	12월 21일(토) 오후 8시 ~ 오후 9시 40분
보속	① 대림 특강 1회 이상 참여하기 ② 평일 미사 2회 이상 참석하기 ③ 본당 추천도서 읽기 ④ 자선 행위 2회 이상 실천하기 ⑤ 목주기도 5단 바치기 ★ 어린이·청소년은 선행 2회 이상
	선택 2가지 이상

- 대림특강 일시 및 주제
 - 대림특강 1: 12월 10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2D에서 3D의 세상으로
 현정수 요한사도 신부님 (수원교구 교단 성당 주임신부)
 - 대림특강 2: 12월 17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
 4차 산업혁명의 성경적 의미와 크리스천의 사명
 안종배 교수 (국제 미래학회장, 한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 교구장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봉헌
 - 11월 30일(토)은 서울 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교구장님을 위해 교우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미사, 목주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화살기도, 희생
- 손뜨개 구유 전시회 (로사리오 카페 전시)
 - 일시: 11월 28일(목)~ 12월 1일(주일)
 - (※전시품은 판매예정, 전금액은 불우이웃에게 기부)
 - 문의: 송 마리아 (010-8737-4514)
-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자 모집 및 후원금 모금
 - 일시: 11월 30일(토) 오전 7시 30분, 성당출발
 - 오전 9시~12시 도봉산 성당(7호선 도봉산 역)
 - 문의: 현 베로니카 (010-7169-7025)
- 한가문연 후원회원 및 일반교우 성지순례 (베테랑성지)
 - 일시: 11월 26일(화) 오전 8시, 성당 출발
 - 준비물: 목주, 미사도구
 - 문의: 한가문연 사무총장 (010-8802-6887)
- 김영선 수녀의 성서 무료 특강 '역사서'
 - 일시: 12월 2일(월) 오후 1시, 2층 대성전
 - 문의: 생활성서 (02-945-5985~7)
- 군복무자 성탄 선물보내기 (12월 8일까지 접수 마감)
 - 군 복무중인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고자 하오니 사무실에 비치된 주소록에 정확한 부대 주소, 이름, 계급 전역날짜,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선물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 군복무자들 성탄 선물 보내기에 빨라가 접수받습니다.)
- 청담 산악회 제 76차 산행 (북한산)
 - 일시: 12월 7일(토) 오전 8시 30분, 성당출발
 - 준비물: 등산화, 스틱, 간식, 회비(1만원)
 - 문의: 김 스테파노 (010-5263-6410)
- 제 60차 성지순례 (삼성산, 광희문)
 - 일시: 12월 7일(토) 오전 8시, 성당출발
 - 준비물: 순례책, 스카프, 회비(2만원, 중식제공)
 - 문의: 송 요셉 (010-5252-1791)
- 세례식 축하 꽃다발 예약 (세례식: 12월 8일)
 - 12월 1일(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예약금 3만원)
- 춘천교구 사회복지 서울후원회 미사(12월 2일, 10시)
 - 김은희 루카 주교님의 집전 미사로 많은 참석바랍니다.
- 11월 24일(주일): 시설보수 2차현금

모 임

- 11월 25일(월): 성령 기도회(강사: 김중애 요안나)
- 11월 26일(화): 시니어 연례회 / 독서단
- 11월 27일(수): 성소후원회 / 군종 후원회
- 11월 29일(금): 제대회 / 예비신자 봉사회

성가번호 입 당: 73 예물준비: 성가정성가, 19 성 체: 160, 170 파 견: 청담동본당가

화 답 송

기 뻐 하 며 주 님 의 집 으 로 가 리 라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08)

서평 <용서가 어려울 때>(4)

용서가 항상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화해는 용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용서가 항상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79 쪽)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지만 화해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내편에서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그러나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 좋지 않은 감정을 풀어 없애고 일치하는 것이다. 용서가 반드시 화해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화해해야만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자! 물론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서로 간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화해까지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 용서하지 못할 때의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움으로 용서

이 책은 1차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부모나 형제와 같이 자기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을 용서했다고 해도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는 완전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하다. 그들과 화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스스로 용서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거리감과 단절감, 거부함을 극복할 수 없다.

1차 관계가 멍들고 깨진 사람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는 화해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너무 미뤄서는 안된다. 이 책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아들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서로 소원한 상태로 화해를 이루지 못하던 부인이 있었다. 부인은 아들에게 화가 나있는 데다가 자존심이 강해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결국은 임종을 앞두고서야 아들과 속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그 부인은 일생 중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다.”(82쪽)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니...,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게 해다오.”(87쪽) 용서 하는데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오로 사도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라고 고백한다. 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분의 힘을 입어 용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감사 헌금 (11/13~11/19)	
연중 제 33주일	13,595,700원	박 안드레아	100,000원
교무금	19,915,000원	정 요셉	100,000원
성소후원금 (5건)	65,000원	권 아녜스	100,000원
교무금 납부 현황		김 베로니카	50,000원
총 세대수	4,191세대	오 테오도로	50,000원
총 납부세대	1,401세대	합계 : 400,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10세대		
총 납부율 (%)	33.4%		